



원곡의 의의

블랙엔테커 이사 전영일

중국 춘추시대의 진(晉)나라의 장군 도안가(屠岸賈)는 그의 정적인 조돈(趙盾) 일족을 무참히 학살한다. 단하나 살아남은 조씨의 유복자는 의사 정영(程嬰)의 도움으로 목숨을 간신히 건져, 성장 후에 전후사정을 알고 이를 복수한다.

우리나라에서 옛날 이야기에서나 나옴직한 소설 줄거리 같은데, 원나라 때의 회곡《조씨고아(趙氏孤兒)》의 줄거리이다. 기근상(紀君祥)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원대(元代)의 회곡을 통틀어 일컬어서 원곡(元曲)이라 하였는데,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큰 장르가 되었다. 이를 명대(明代)의 남곡(南曲)에 대해 북곡(北曲)이라고도 칭한다. 이는 북방계의 음악을 이용한 가곡으로, 처음에는 북경(北京)에서 그 뒤에는 항주(杭州)를 중심으로 약 150년간 성행했다.

형식은 13세기에 금대(金代)의 원본(院本)과 계궁조(諸宮調)를 모체로 하여 탄생하였다고 한다. 구성은 4막으로 되어있는데 노래는 남자 주역과 여자 주역에 한하며, 4막을 통해 한 사람이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배우는 대화만 하며 또 1막은 같은 음계에 속하는 몇 개 내지 수십 개의 노래를 짜 맞춘

것이며 가사는 한 종류의 운자(韻字)로 압운한다.

작품의 내용으로는 이민족(異民族) 지배하에서 관리에의 길이 막혀버린 많은 지식인이 그 못다한 을 본과 정열을 원곡에 쏟았으므로 획기적인 문학으로 발전하였다. 현존하는 작품은 150~160편 정도 남아 있는데, 주요 작자에 관한경(關漢卿)·마치원(馬致遠)·백박(白樸)·왕실보(王實甫)·정광조(鄭光祖)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펴낸《원곡선(元曲選)》은 중국 원곡(元曲)의 선집인데, 선자(選者)는 명(明)의 문인 장진숙(臧晉叔)으로 알려져 있다. 원곡의 대표작 100편을 정선하여 수록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원곡의 교본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1616년 간행되었는데 명의 궁정 소장의 각본을 베낀 것과, 원자의 비장본 중에서 수작을 골라 엄밀하게 교정했다. 선택이나 교정에 약간의 지나친 점은 있으나 혼란된 교본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공적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나라(元 : 1271~1368)는 몽고족이 중국을 정복하고 세운 왕조인데, 국호는《역경(易經)》의 <대제건원(大哉乾元)·만물자치(萬物資治)>에서 유



기술표준가족

래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몽고제국의 제5대 황제 쿠빌라이칸(Kublai Khan : 1216~1294)은 1260년에 상도(上都 : 開平)에서 즉위하였다.

그 후 1271년에 대도(大都 : 北京)에 천도하고 국호를 대원(大元)이라 고치고, 중국을 지배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였다. 1279년 에산(崖山)의 싸움에서 남송(南宋)을 격파해서 멸하고 계속하여 고려·안남(安南)·버마·자바를 차례로 종속시켜 드디어는 중국적인 전제국가를 확립하였다. 14세기 중엽에는 홍건(紅巾)의 난 등 각지에서 농민이 봉기하였고 드디어 주원장(朱元璋)의 명(明)나라에게 패망하였다.

관계로서는 중앙에 행정(行政)을 맡아보는 중서성(中書省), 군사(軍事)를 맡아보는 추밀원(樞密院), 감찰(監察)을 맡아보는 어사대(御史臺), 재정(財政)을 맡아보는 상서성(尚書省)이 있고, 각 지방에 행정(行省)을 설치하고 다루가치(達魯花赤)라는 관장을 파견하였다.

사회적으로는 몽고인이 대다수의 한인(漢人 : 金朝의 遺民)이나 남인(南人 : 南宋의 遺民)을 지배하고 색목인(色目人 : 西域人)이 이것을 보좌하고 일대 몽고 최고 지상주의의 사회를 건설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동서무역이 번성했고, 지급의 지폐(紙幣)적인 교초(交鈔)가 유통되었다. 문화면에서는 파스파 문자를 남겼다.

파스파(Hphags-pa : 1235~1290)는 티베트의 불교 사카파의 법왕인데, 원(元)나라의 세조 쿠빌라이의 제사(帝師)였다고 한다. 중국명은 성자라는 뜻의 팔사파(八思巴)인데, 숙부 사관으로부터 인도불교 최후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밀(顯密) 두 교에 뛰어났다. 1253년 쿠빌라이가 티베트를 정복했을 때 계(戒)를

주었고 즉위 후에는 국사(國師)로 추앙되었다. 왕명을 받들어 티베트 문자에 근거하여 몽고어 등을 위한 이른바 몽고 글자인 파스파 문자를 제정하였다. 1270년 티베트 왕이 되어 사카 왕조를 수립하였는데, 저서에는 《창소지론(彰所之論)》이 있다.

다시 원나라의 《조씨고아》로 돌아와서, 회곡(戲曲)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연예에서는 연극의 극본(劇本)을 말하고, 문학의 한 형식으로는 주로 회화(會話)와 연기(演技)에 의하여 표현되는 예술작품을 이른다. 대개 극적 내용을 대화를 주로 하며, 연기와 연출을 지시하는 지문(地文)을 첨가하여 상연을 목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각본과 같은 뜻이지만 좀더 문학적 관점을 중시했을 때 사용한다.

한편 단순히 문예작품을 회곡의 형식을 빌어 표현한 일기 위주의 회곡 <러계 드라마>도 있다. 본시 중국 송대(宋代)의 가곡을 주요한 극을 의미하는 말을, 근세에 이르러 영어의 드라마(drama)나 플레이(play)의 번역어로 사용했다. 유럽에서는 BC 5세기경의 그리스 연극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회곡이 나타났다. 가무(歌舞)의 요소가 강한 동양에서는 제2의적(第二義的) 성격이 강했고, 우리나라에서 근대회곡이 대두한 것은 광무(光武) 연간에 원각사에서 상연된 《설중매》와 《은세계》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창작회곡은 그 보다 훨씬 뒤에 나타났다. 회곡종류로는 제재·내용·목적·형태에 따라 비극·회극·사극·민화극·종교극·창작극 등으로 나눈다. 《조씨고아》는 《사기(史記)》에 기록된 사건을 극화한 것으로 전편에 비장감이 넘쳐흐르는 보기드문



결각이다. 특히 정영의 아들이 그의 눈앞에서 유복자 대신 살해되는 제3막이 압권이다. 원간본(元刊本)에서는 4막이 클라이막스로 되어 있다. 《원곡(元曲選)》에서는 여기에다가 복수(復讐)의 장을 첨가하여 전부 5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기(史記)》는 중국 한(漢)나라의 사마천(司馬遷)이 황제(黃帝)에서부터 한무제(漢武帝)까지의 역대왕조의 사적(史蹟)을 기전체(紀傳體)로 엮은 서사서이다. 총 130권으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종래의 기록이나 전설 외에 널리 자료 수집하여 만든 책으로, 사서(史書)로서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높이 평가된다. 중국 정사(正史)의 으뜸으로 꼽히며, 후에 사마정(司馬貞)에 의해 《삼황본기(三皇本紀)》가 보충되었다.

《사기영선(史記英選)》은 1795년 정조19년에 사마천의 《사기》중에서 정수를 뽑아 엮어 후학의 규범으로 삼으려고 편찬한 책이다. 1796년에 정조(正祖)가 친히 편찬한 것이다.

사마천(BC 145~186)은 중국 한(漢)나라의 역사가인데, 《사기(史記)》의 저자이며 태사령(太史令) 사마담(司馬談)의 아들이다. 약관 10세에 이미 고전을 읽고 20세에 각지를 여행하여 견문을 넓혔다. 그 때에 얻은 풍부한 견문이 《사기》에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그가 부친 사망 후에 그 직을 계승하여, 궁중 장서를 자유로이 읽을 기회를 얻었다. 기원전 99년에 장국 이능(李陵)을 변호한 탓으로 무제의 노여움을 사 드디어 이듬해 궁형(宮刑)에 처해졌으나 발분(發憤)하여 대작업인 《사기》편찬을 완성했다.

